기획 연재

孝와 烈에 관한 瞑想 ⑦③

權 五 焄
本紙편집인

219. 조종체수趙宗替瘦

조효종趙孝宗의 아우 효례孝禮가 도적에게 겁략되었는데 도적이 이를 삶아서 먹고자 하였다. 효종이 도적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 아우는 늙은 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느라 그 몸이 수척하여 내가 살찐 것만 같지 못하니 청컨대 나를 대신 삶아 주시오 ’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애절하였다. 도적이 이는 효자라 하고 둘다 풀어주었다.

형왈조종兄曰趙宗 : 형은 조종이고
제즉명례弟則名禮 : 아우는 이름이 예인데
적미겁례赤眉劫禮 : 붉은 눈썹의 도적 예를 겁략하여
포이충기脯以充飢 : 포를 떠 요기를 하려 하네
종예자진宗詣自陳 : 종이 나아가 스스로 말하기를
예능효제禮能孝悌 : 예는 능히 효도와 우애를 하고
차기신수且其身瘦 : 도한 그 몸이 수척하여
불여종비不如宗肥 : 종이 살찐 것과 같지 않으니
원이비형願以肥兄 : 원컨대 살찐 형으로써
체기수제替其瘦弟 : 그 수척한 아우와 바꿔달라 하니
적문경감賊聞驚感 : 도적이 듣고 놀랍게 감동하여
즉량석지卽兩釋之 : 바로 둘다 풀어주었네

시경詩經에 말하기를 ‘ 사상死喪의 위태로움에서 형제가 서로를 몹시 그리워한다 ’ 하였다. 이 말은 사상의 화禍를 다른 사람은 두렵고 싫어하는 바인데 오직 형제만이 서로 가엽게 여겨 근심하고 돕는다는 뜻이다. 대개 사상의 환난을 당해서는 서로 구휼救恤하고 급난急難에 서로 구휼하는 것이 본디 형제의 지극한 정리이다. 대저 간곡히 귀신에게 빌어 형이 죽는 대신 자기 몸으로 대신해 달라고 한 것은 주공周公 외에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번에 조효종의 아우가 도적에게 겁략되어 장차 삶아 먹으려 하니 그 화가 심히 긴박하여 힘으로 능히 구할 수가 없는 바일 때, 조효종이 그 신명身命을 돌보지 않고 위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래로는 그 아우를 연민하여 살찐 제몸으로 마른 아우를 대신할 것을 청하니 그 말뜻이 애절하여 도적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는 드디어 둘다 석방되기에 이르렀은즉 일의 난처했던 것이 거의 주공周公이 처했던 것보다 심한 바였던 것이다. 오호라, 어질도다.

제목 조종체수趙宗替瘦는 조효종이 수척한 아우와 바꾸었다는 뜻이다. 조효종과 조효례는 중국 전한前漢 말기의 사람이다. 적미적赤眉賊은 눈썹이 붉은 도적이라는 말인데 전한말에 왕망王莽이 한왕실을 찬탈하여 신新나라를 세우자 이를 친다는 명목으로 번숭樊崇이 군사를 일으켜 왕망의 군사와 구별하기 위해 눈썹에 붉은 칠을 하여 생긴 이름이다.

220. 염자입록琰子入鹿

염자琰子는 가이국迦夷國 사람인데 부모가 연로한데다 두 눈에 병이 들어 앞을 보지 못했다. 염자가 사슴가죽을 뒤집어쓰고 사슴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 사슴의 젖을 취하여 양친을 공양하려는데 국왕이 수렵을 나와 쏜 화살에 맞았다. 염자가 애달피 부르짖기를 ‘ 왕께서 지금 한 화살로 세 사람을 죽입니다 ’ 하니 왕이 까닭을 물었다. 염자가 ‘ 내가 이미 죽으니 양친도 같이 다 죽습니다 ’ 하였다.

그 부모가 또한 이를 듣고 통곡하는데 왕이 시신을 이끌고 이르자 그 부모가 시신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했다. 그 소리가 천궁天宮에 진동하자 천제天帝가 약을 불어 그 입에 들어가게 하니 염자가 소생하였다.

염자불행琰子不幸 : 염자가 불행하여
이친쌍고二親雙B : 양친이 다 장님 되고
우로차병又老且病 : 또한 늙고 병드니
사욕록유思欲鹿乳 : 사슴의 젖 얻고자 하네
내몽기피乃蒙其皮 : 이에 마침내 그 가죽을 쓰고
입군구취入群求取 : 무리에 들어가 사슴젖 구하는데
홀조렵객忽遭獵客 : 홀연히 사냥꾼을 만나
일시이조一矢而B : 한 화살에 맞아 죽네
고친래무B親來撫 : 소경 어버이 와서 어루만지며
지벽천호地B天呼 : 땅을 치며 하늘에 부르짖으니
천제사약天帝賜藥 : 천제가 약을 내려
입구편소入口便蘇 : 입에 들어가니 문득 살아났네.

사슴의 무리에 들어가 젖을 짜려다가 사냥꾼을 만나 화살을 맞으니 이는 얼마나 그 효성이 절실하며 화를 얻은 것이 난폭한 것인가. 그러나 마침내 하사한 약이 입에 들어가자 문득 소생하였으니 하늘의 보응이 진실로 거짓되지 않은 것이다.

제목 염자입록琰子入鹿은 염자가 사슴의 무리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가이국은 가이라국迦夷羅國 또는 가유라위迦維羅衛, 약칭으로는 가위迦衛、가유迦維라고도 하는 인도의 석가모니 탄생지이다. 이 이야기는 특이하게 고대 인도에서 나온 것이다.

221. 일제배상日B拜像

김일제金日B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가르쳐 깨우치기를 매우 법도가 있게 하였는데 천자天子가 이를 듣고 아름답게 여겼다. 그 어머니가 병으로 죽자 황제가 조칙을 내려 감천궁서甘泉宮署에서 휴도왕언지休屠王閼氏라 쓴 화상을 그리게 하였다. 김일제가 그 화상을 보면서 늘 절하고 울먹였다. 휴도는 흉노匈奴의 별종 겨레의 왕명이고 언지는 그 왕후를 이른다.

휴도언지休屠閼氏 : 휴도왕후 언지가
교자유법敎子有法 : 자식을 가르침에 법도가 있고
자왈일제子曰日B : 아들은 일제인데
입한공업立漢功業 : 한나라에 공업을 세웠네
도상감천覩像甘泉 : 감천에 그린 화상을 보면
필배이읍必拜以泣 : 반드시 절하고 울먹이니
의이자손宜爾子孫 : 마땅히 그 자손이 잘되어
이초칠엽珥貂七葉 : 7대나 정승이 되었네

좌태충左太B의 시에 ‘ 김장적구업金張藉舊業 : 김과 장이 옛사업을 바탕으로, 칠엽이한초七葉珥漢貂 : 칠대에 걸쳐 한나라 재상이 되었네 ’ 하였는데 그 주註에 ‘ 김일제가 7대에 걸쳐 한漢나라 궁정의 내시內侍가 되고 장탕張湯의 자손 10여인이 시중侍中이 되었다 ’ 하였다. 이珥는 꽂는 귀엣고리이고 초貂는 담비의 꼬리로서 관冠을 장식하는 것이다.

언지의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이미 법도가 있었고 일제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능히 효를 다하였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죽은 뒤에는 매양 그 화상을 볼 때마다 반드시 절을 하였으니 그 생시에 경순敬順하여 치효致孝하였음을 가히 알 수가 있는 고로 털가죽 깃발의 오랑캐의 나머지였음에도 한나라에서 돌보아 대신을 삼는 바 되었다. 그리하여 훈덕으로 능히 보전하여 시종하고 자손에 이르러 7대가 서로 이어가며 한나라의 재상으로 귀히 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비록 김일제의 천질天質의 아름다움에서 말미암았다 할지라도 또한 언지閼氏의 가르친 힘과 학문의 공에서 온 것임을 속일 수 있겠는가.

제목 일제배상日B拜像은 김일제가 화상에 절했다는 뜻이다. 김일제는 한나라 초기 북방 흉노匈奴의 왕 휴도休屠의 태자太子로서 자는 옹숙翁叔이다. 무제武帝 초년에 한나라에 귀순하여 마감馬監이 되었는데 관직을 거듭하여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그 용모가 엄숙하고 황제를 시종하기 수십년에 신임이 돈독하며 과실이 없이하니 황제의 친애와 중히 쓰임을 받았으며 휴도가 금으로 사람을 만들어 천주天主에게 제사지냈으므로 그 성을 금金으로 내리고 거기장군車騎將軍을 배하였다. 망하라莽何羅가 모반하자 김일제가 이를 잡아 베어 투후B侯에 봉작되었다. 망하라는 본디 마하라馬何羅로서 무제 때 시중복야侍中僕射였는데 친하던 강충江充이 태자를 무고한 죄로 멸족을 당하자 화가 미칠까 두려워 무제를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김일제에게 사로잡혔다. 뒤에 후한後漢의 마황후馬皇后가 그가 동족인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 성을 망莽으로 고치게 했다. 무제가 죽은 뒤에는 김일제가 곽광B光과 더불어 그 유조遺詔를 받들어 정사를 보살폈고 죽은 뒤에는 경공敬公으로 시호를 받았다. 언지閼氏는 연지라고도 하며 한대에 흉노족 선우單于의 제왕諸王의 후와 같은 적처嫡妻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음으로 오면 알지로서 신라 김씨왕조의 시조 김알지金閼智와 음이 같다. 서기 660년 사람인 신라의 문무왕文武王 김법민金法敏이 그 비문에 자기 조상이 중국의 고대인 김일제金日B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비문에 ‘ 투후제천지윤B侯祭天之胤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투후가 바로 김일제가 한무제로부터 받은 작호이다. 투후는 한무제가 흉노와 싸울 때 청년장수 곽거병B去病에게 잡힌 흉노왕 휴도休屠의 아들이며 김일제 투후와 그 후손의 이야기는 한서漢書와 열전列傳에 나와 있고 중국 서안西安에는 김일제의 묘소도 있다. 흉노의 황제 선우單于 아래에는 여러 왕이 있는데 곤사왕昆邪王과 휴도왕의 나라는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초원이었다. 하서주랑河西走廊으로 불리는 이곳을 거쳐야 서역 중앙아시아로 갈 수 있었다. 한무제는 흉노가 차지하고 있던 이곳을 차지하여 빼앗아 서역과 무역을 트는 실크로드를 열었다. 서력기원전 121년 무렵 곽거병이 처들어가 흉노군은 패전을 거듭했다. 곤사왕은 선우로부터 받을 문책이 두려워 휴도왕을 꾀어 항복하자고 한다. 휴도가 거부하자 이를 죽이고 곤사왕은 곽거병에게 항복하는데 휴도의 부인 언지閼氏와 아들 일제와 윤倫 형제를 포로로 하여 데려갔다. 언지는 흉노어로 여인이기도 한데 또한 금金으로서 알타이이기도 하다고 한다. 그래서 금인金人은 알타이사람과 같은 소리라고도 해설하는 학자가 있다. 투후 봉작 투B는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하택현荷澤縣과 성무현城武縣이어서 한반도와 매우 가깝다. 진시황의 20대조 진목공秦穆公이 휴도왕의 후손이라 하는데 그 성이 영B씨이다. 기원전 10세기에 목축으로 이름난 대구大丘의 비자非子가 주周의 효왕孝王에게서 지금의 감숙성 청수현淸水縣의 진읍秦邑을 받아 진나라를 일으켰다. 이후 양공襄公 때 산서성山西省 서부를 장악하는 제후국이 되고 기원전 7세기 춘추시대에 이르러 목공이 서방 12국을 통합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패자가 되며 이 진나라가 감숙성 천수天水 땅에서 나라를 일으켜 섬서성陝西省 북서의 하서주랑을 차지해 천하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간신에게 죽은 진시황의 태자 부소扶蘇의 후손이 진이 망한 뒤 후일의 재기를 기약하며 서촉으로 망명해 한의 눈엣가시이던 하서주랑의 흉노족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김해김씨의 시조 김수로왕金首露王이 또한 김일제의 아우 김륜金倫의 5대손이라 한다. 이 김수로왕 등은 그 친척인 한의 왕망王莽이 한왕실을 찬탈하여 신新나라를 세우자 존귀하게 되었으나 15년 만에 후한 광무제光武帝에게 망하므로 한반도로 망명해 와 중국에서 먼 김해金海 땅에 가야국伽倻國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김해김씨도 신라종실 김씨와 동성이라는 것이다.